

순천시, 경제영역 확장 성과…세일즈 행정 매진

그린바이오산업 사업설명회 우주로봇 미래산업 체험회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방자치시대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된 순천이 산업 생태계의 판을 바꾸고 있다.

순천시는 19일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시와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갈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순천의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바이오 산업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는 ㈜네추럴앤도텍 본부장 비롯한 45개 기업 150여명이 참석해 순천의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설명회는 순천시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특별초청 연사박재규 전 KT&G 원장의 ‘홍삼의 이해’ 강연과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박경욱 산업개발국장의 ‘기업체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라는 주제 발표로 이어지며 기업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과 거점기지인 승주읍으로 이동해 미래 도시 모습의 청사진을 현장감 있게 제시했다.

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도시 전체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승주읍은 그린



순천시는 19일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시와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갈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순천의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바이오 산업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바이오 분야 혁신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추진 중인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그린바이오 분야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서 확장해 지·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된 순천대는 인재양성 및 기술지원을, 시 출연기관인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와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소개개발과 R&D

를 지원하며 승주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지·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사업설명회에서 순천시, ㈜유엠 간 투자협약식과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와 순천앤매실㈜간 기술이전식이 이뤄져 순천 그린바이오 사업 추진을 구체화했다. ㈜유엠은 순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완공 후 입주해 순천시와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40여개의 바이오 업체가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우주·첨단소재에 이어 바이오까지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전남 1위

보성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전남 1위를 차지, 포상금 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사후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단 6곳에만 시상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소득, 재산 및 인적 변동이 있는 가구 등 변동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복지 대상자 사후관리, 복지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이수 등 개인정보 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기람 기자

장흥군,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수립 산단 청년주택 등 7개 사업 진행

장흥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석훈 부군수를 비롯 실과소장 및 용역사 등 24명이 참석해 용역 수행기관의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장흥군 빈집 실태 △장흥군 장래인구 전망 등 분석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방안이 보고됐다. 제안된 7개 사업의 예상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1만원 임대주택 △건강 치유의 집 △산단 청년주택 등이 있다.

군은 연구용역에서 최종 제안된 7개 사업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이듬해 빈집 정비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그 결과물을 주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섬섬여수 1·2·3호, 소외도서 3개 항로에 취항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선정 19일 1호 운항… 2·3호 뒤이어

여수 도서지역 모든 미취항 유인섬에 뱃길이 열린다.

여수시는 정부의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미취항 유인섬 3개 항로에 올해 안에 섬섬여수 1, 2, 3호가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 내 섬 중 여객선과 도선이 미기항(耑航)하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을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 전국에 10개 항로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화양면 대운두도와 남면 소두라도, 소횡간도 등 2개 항로가 선정됐다.

지난 8월에는 화정면 추도가 추가 선정돼 국비 1억3500만 원 포함 총 2억7000만 원을 확보, 인건비와 유류비 등 선박



여수시가 정부의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미취항 유인섬 3개 항로에 올해 안에 섬섬여수 1, 2, 3호가 운항하게 된다.

여수시 제공

운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고흥과 경남 고성에서 해당 항로에 투입할 감척어선을 확보하는 한편, 약 5개월에 걸쳐 이 어선의 기타 선박 변경 등록, 선박 수리 및 검사 등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현재 선장 안전교육도 마친 상태로, 선명은 우리 시 BI(Brand Identity)를 활용해 ‘섬섬여수 1호, 2호, 3호’로 명명했다.

섬섬여수 1호는 취항을 위한 모든 준비

를 마치고 19일 화양면 대운두도와 감도를 운항하게 된다. 이후 2호(남면 소두라도와 소횡간도, 월전)와 3호(추도와 남도)가 순차적으로 운항에 나선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미취항 유인섬에 새로 뱃길이 열려 해당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전통시장상품권 내년부터 폐지

상품권 관리 효율성·투명성 확보

내년 1월부터 여수시가 발행하는 전통시장상품권이 폐지되고, 여수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5000원권 발행·판매가 중단된다.

여수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품권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와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행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구매수요가 거의 없는 전통시장상품권과 5000원권 폐지 △상품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노점상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 시행 △사용자 편의 제고와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한 모바일형 도입 근거 마련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규정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연매출액에 따른 가맹점 등록제한 근거 규정 등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수시에서만 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상품권은 사용자 제한으로 구매수요가 거의 없는데다, 여수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고정 발행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했다. 또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을 축소하고,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은 카드형 확대 운영을 위해 판매량이 저조한 5000원권도 폐지한다. 단, 기존 판매된 상품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과 환전이 가능하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내년 1월31일까지 온라인 접수

고흥군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이다. 최종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미만인 농업인으로, 농지 구입과 가공시설 설치, 축사 신축 개보수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고 융자금을 5억 원(연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창농 초기에 경영자금 부족과 농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청년 후계농을 위해 2018년부터 ‘창업·정착·성장’이라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108명의 청년 농업인에게 20억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과 1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영농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기람 기자

순천경찰, 여성청소년 용품 후원 초록우산 순천후원회 행사



순천경찰(서장 김남희)은 지난 18일 연말연시를 맞아 초록우산 순천후원회 주관 여성청소년 용품지원사업 산타원정대 ‘너의 성장을 응원해’ 행사에 참여, 관내 사회적 약자 여성청소년 중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직접 발굴한 18명 포함 총 150명 선발하여 여성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순천후원회, 순천시청, 순천경찰서, 순천세무서 등 민·관·경 합동 산타원정대를 구성, 후원 용품 선별 포장 후 대상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 예정으로 개인당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품 키트로 구성되어 있다.

김남희 순천경찰서장은 “순천 지역 여성청소년들에게 후원용품을 전달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안정감 및 자신감 회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관·경 합동하여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